



## 독도에 대한 한국의 주장

1454년

『세종실록』 「지리지」

조선 초기 관찬서인 『세종실록』 「지리지」 (1454년)는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 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산(독도) 무릉(울릉도)...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울릉도에서 날씨가 맑은 날 육안으로 보이는 섬은 독도가 유일합니다.



세종실록 지리지



## 독도에 대한 한국의 주장

1625년

다케시마(竹島, 울릉도) 도해(渡海) 면허  
일본 막부가 돗토리번(지금의 돗토리현)에  
살고 있는 오야·무라카와(大谷·村川) 양가에  
다케시마(竹島, 울릉도) 도해(渡海)를  
면허한 것입니다.

면허를 내린 시기는 1618년, 또는  
1625년이라고도 합니다.



울릉도 전경

자료제공 : 울릉군청



## 독도에 대한 한국의 주장

1693년

안용복(安龍福) 일본 납치

안용복(安龍福), 박어둔(朴於屯) 두 사람이 울릉도에서 어업을 하다가 울릉도에 온 일본 오야·무라카와(大谷·村川) 양가의 선원들에게 잡혀서 일본으로 끌려간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조선과 일본 간의 울릉도 영유권에 대한 분쟁(울릉도 쟁계)이 발생합니다.







## 독도에 대한 한국의 주장

1694년

울릉도 수토제도 시행결정  
안용복 사건으로 인해 일본과 울릉도  
영유권에 대한 분쟁(울릉도 쟁계)이  
발생하자, 조선 정부는 삼척첨사  
장한상(張漢相)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울릉도의 현황을 조사합니다.

그 이후 영의정 남구만의 건의에 따라 2년  
걸러 한 번씩 관원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수토\*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울릉도 전경

자료제공 : 울릉군청



## 독도에 대한 한국의 주장

1695년  
일본 돗토리번 답변  
일본 막부는 울릉도 영유권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돗토리번에 울릉도의  
소속을 질문(12월 24일)했습니다.



돗토리번 답변서 (복제본)

이에 대해 돗토리번이 막부에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돗토리번의 소속이 아니라고  
답변(12월 25일)함에 따라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확인합니다.



## 독도에 대한 한국의 주장

1696년

5월. 안용복(安龍福) 일본 도해  
안용복(安龍福)이 울릉도에 어업 온 일본  
어선을 추격하여 독도(자산도)에서  
쫓아버리고, 일본에까지 다녀온 사건입니다.

이때 안용복이 오키섬 관리에게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령이라고 진술한 기록이  
「원록9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에  
실려 있습니다.



원록구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





## 독도에 대한 한국의 주장

1770년

『동국문헌비고』 「여지고」

국왕 영조의 명에 의해 조선의 문물제도를 기록한 관찬서입니다.



원록구병자년조선주척안일권지각서

이 책에는 "우산도(독도)와 울릉도...  
두 섬으로 하나가 바로 우산이다...  
「여지지」에 이르기를,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인데, 우산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松島)다."라고 하였습니다.



## 독도에 대한 한국의 주장

1870년

일 외무성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1870년 외무성 관리인 사다 하쿠보(佐田白茅)

등이 조선을 시찰한 후 외무성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조선 부속이 된 사정”이 언급되어 있어, 당시 일본 외무성이 두 섬을 조선 영토로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복제본)

자료제공 : 독도박물관





## 독도에 대한 한국의 주장

1877년

「태정관(太政官)지령」

1877년 3월 일본 최고 행정기구인 태정관이 내무성에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니라고 내린 지령입니다.



태정관지령

태정관은 17세기 에도 막부와 조선 정부 간 교섭(울릉도쟁계) 결과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소속이 아님이 확인되었다고 판단하고, “다케시마(울릉도) 외 일도(一嶋, 독도)의 건에 대해 본방(本邦, 일본)과는 관계가 없음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무성에 내렸던 것입니다.



## 독도에 대한 한국의 주장

1900년  
 칙령(勅令) 제41호 반포  
 고종 황제는 칙령으로 '울릉도(鬱陵島)를  
 울도(鬱島)로 개칭(改稱)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改正)한  
 건(件)'을 제정 반포했습니다.

이 칙령 제2조에 울도군(鬱島郡)의 관할  
 구역으로 울릉전도(鬱陵全島),  
 죽도(竹島)와 함께 석도(石島, 독도)를  
 규정하여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칙령 제41호





## 독도에 대한 한국의 주장

1906년 3월. 울도군수 심흥택 보고서  
 울도군수 심흥택이 울릉도를 방문한 일본  
 시마네현 관민 조사단으로부터 일본이  
 독도를 영토 편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 날 강원도 관찰사와  
 내부(內部, 현재의 행정안전부에 해당)에  
 보고한 문서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본군 소속 독도"라고 하여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고서 호외 및 지령 제3호





## 독도에 대한 한국의 주장



SCAPIN 제677호 관련 지도  
(복제본)

자료제공 : 독도박물관

1946년 1월 29일.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의 통치 행정  
범위에서 독도를 제외시킨 각서입니다.

연합국 최고사령관은 일본의 영역에서  
"울릉도, 리앙쿠르암(독도)과 제주도는  
제외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 독도에 대한 한국의 주장



SCAPIN 제677호 관련 지도  
(복제본)

자료제공 : 독도박물관

1946년 6월 22일.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1033호  
연합국 최고사령관이 SCAPIN 제677호에  
이어 일본의 선박 및 국민이 독도 또는  
독도 주변 12해리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한 각서입니다.



## 독도에 대한 한국의 주장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을 종결하면서 연합국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입니다.

이 조약 제2조(a)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3천여 개의 도서 가운데 예시에 불과하며, 독도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독도가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자료제공 : 미국국립문서기록관리청



# 각 나라에 대한 주장

한국

일본

미국



## 독도에 대한 한국의 주장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워 울릉도에서 맑은 날 육안으로 독도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은 조선의 『세종실록』 「지리지」(1454)에도 기록되어 있다. 예전부터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인식돼 옛 문헌·지도에는 두 섬이 늘 함께 기록된 것이다.

독도가 우리 역사에 처음 등장한 것은 신라시대이다. 『삼국사기』(1145)에는 신라 지증왕 13년(512) 하슬라주(현재의 강릉)의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정복했다고 나온다. 울릉도에는 우산국의 전설과 함께 삼국~통일신라시대 고분이 남아있다. 우산국은 울릉도와 우산도를 영역으로 했으며, 독도의 옛 명칭인 우산도는 우산국에서 유래했다. 울릉도와 우산도가 우산국 땅이었다는 것은 『동국문헌비고』(1770) 『만기요람』(1808) 등 여러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

1963년 조선 어민 안용복은 울릉도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일본인들과 싸우다 납치당해 일본으로 끌려갔고, 울릉도의 소속에 관한 논쟁인 '울릉도 쟁계'가 벌어진다. 이로 인해, 일본 정부는 '돗토리번 답변서'를 쓰고 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리게 된다.